

힐빙(Healbeing) 개념의 농어촌공간 적용 방안

윤상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e-mail:ysh0039@ekr.or.kr

A Plan to Apply the Healbeing Concept to Rural Space

Sang-Hun Yun

Rural Research Institute, KRC(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약

본 논문은 아직 생소한 “힐빙(Healbeing)”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힐빙의 개념을 농어촌이라는 공간에 적용함에 있어 그 가능성과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서론

최근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힐링(healing)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은 직장 및 일상생활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다양한 방법(여행, 운동, 산책, 독서, 명상, 맛있는 음식, 친교활동, 휴식·휴양 등)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영역이 새롭게 생성·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농어촌공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바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숲, 농경지 및 자연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을거리가 다양하게 있어 상술한 도시민들의 지친 육체와 정신(스트레스)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은 관광목적지로서 도시민들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힐링 및 웰빙’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단지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체험마을(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경체험, 갯벌체험, 생활문화체험 등을 위한 학습 공간) 혹은 관광지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한편, 민간사업 영역에서는 힐링 수요 및 사업가능성을 판단하여 몇몇 기관이 농어촌지역에 ‘힐링, 명상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운영하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유와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농어촌공간을 힐빙(Healbeing) 대상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힐빙에 대한 개념 정립

2.1 힐빙의 정의

힐빙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토종 신조어로 대학이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힐빙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의 사전(네이버 사전)에서는 힐빙을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의 합성어로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을 뜻하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개념으로는 ‘힐링(Healing)’, ‘웰빙(Well-being)’, ‘웰니스(Wellness)’, ‘로하스(LOHAS)’ 등이 있다. ‘힐링, 웰빙, 웰니스, 로하스’는 모두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용어들은 개념적 차이점이 있다. ‘웰빙’은 환경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친환경제품구매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웰니스’는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지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개인적인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로하스’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회적 웰빙으로 소비패턴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힐링’은 웰빙과 로하스의 개념에 자아실현 욕구가 더해진 보다 고차원적인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힐빙을 ‘힐링을 통한 건강한 삶’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²⁾.

2.2 힐빙의 영역 및 범주

‘힐링을 통한 건강한 삶’의 의미는 추상적이므로 이를 농어촌과 결부시켜 그 영역과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힐빙 활동의 주체

도시의 삶 속에서 지친 심신(心身)을 농어촌을 방문, 힐링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찾겠다는 측면에서 볼 때 1차적인 주체는 도시민이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힐빙 활동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

2.2.2 힐빙 활동을 위한 공간적 범위

힐빙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농어촌공간을 포함한 전 국토공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간을 어떻게 힐빙을 위해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공간이 힐빙을 위한 가치 및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2.3 힐빙의 대상 행위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힐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2.4 힐빙의 지향점

도시민은 도시의 삶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농어촌을 방문하여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며, 농어촌 거주민 또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농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한다.

3. 힐빙의 농어촌공간 적용 방안

3.1 힐빙의 농어촌 접목 가능성

도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 선호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19에 따른 폐쇄적인 생활 등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휴식·휴양 공간으로서 기능 및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농어촌의 사회·문화·자연환경 및 지역자원 등을 힐빙(Healbeing)을 위한 소재, 테마로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한다면 도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2 힐빙의 농어촌공간 적용상의 전제조건 및 방향

3.2.1 힐빙의 농어촌공간 적용상의 전제조건

힐빙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대상이 따로 있으므로 수요자를 찾아내고 수요자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한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오히려 공멸(共滅)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역량을 갖추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운영해야 할 것이다.

3.2.2 힐빙의 농어촌공간 적용 방향

힐빙의 농어촌공간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농어촌다움 및 친환경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힐빙의 지향점은 도시민들이 삶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 및 긴장을 농어촌공간에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농어촌 정주민 또한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그 방법 및 내용에 있어 농어촌의 고유성, 특성 등 농어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농어촌다움이 훼손될 경우 힐빙 공간으로서의 농어촌의 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힐빙 개념을 농어촌에 접목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추진 주체로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은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각각 나름의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힐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어촌공간의 힐빙 적용 방향으로는 첫째, 힐빙의 대상으로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나, 지역주민 또한 고려해야 한다. 힐빙의 행위 주체로서 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외에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측면에서 지역사회(지역주민)의 건강 증진도 대상으로 삼아 도시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제약 없이 체험·경험할 수 있는 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자원의 단순 이용에서 벗어나 힐빙의 틀 속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기존 농어촌공간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자원 혹은 단순한 이용에 그친 자원들을 ‘힐빙’이라는 테마 속에서 연계하여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힐빙에서 요양(療養)으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한다. 현재

2) ‘치유(治癒)’라는 의미가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을 의미하고 있어 당초 힐링(Healing)이라는 용어를 ‘치유’로 번역한다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농어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휴식·휴양의 단계에서 진보하여 힐링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어촌공간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다양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시작단계로서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단계에 있지만 향후에는 힐링에서부터 요양까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화가 필요하다.

3.3 힐링의 농어촌공간 적용을 위한 추진과제

힐링 개념을 농어촌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1 힐링에 대한 관심 유도

힐링에 대한 용어가 점차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힐링’의 개념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 뿐만 아니라 농어촌 거주민 또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큼으로 힐링의 발원 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체험마을은 단순 체험위주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경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힐링 개념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자(리더, 주민)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3.2 힐링의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우선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힐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수요자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수요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데이터의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사업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과 같은 힐링에 대한 기초연구에서 힐링의 농어촌공간 적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유형이 발굴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성공사례 전파가 필요하다. 현재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힐링의 농어촌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차후 힐링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힐링 관련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업자 간의 네트워크(협회 등)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힐링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힐링의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해서는 힐링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의 마련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힐링을 통한 신체 및 정신적 변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3.3.3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지원 전문가 육성

우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힐링 관련 다양한 사업이 농어촌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1차적인 주체인 농어촌 주민의 추진역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힐링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아이템 등 추진 역량이 부족한 실적이다. 따라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지원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민의 어려운 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별도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산림청의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힐링치료사, 힐링가이드, 힐링관광전문가 등의 양성이 필요하다.

3.3.4 품질관리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못지않게 힐링 프로그램의 경우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먹을거리, 볼거리, 할거리, 쉴거리 등에 있어 양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3.5 힐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힐링의 농어촌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가칭 농어촌 힐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이 요구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아직 생소한 ‘힐링(Healbeing)’의 개념을 농어촌 공간에 적용함에 있어 그 가능성 및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논문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농어촌공간에 힐링 개념을 접목한 구체적인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네이버 사전(<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힐링>).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3] 신동일, “제주지역 힐링관광 발전방안 연구”, 2013년, 제주발전연구원.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0년.
- [5] 황정임·최윤지·조록환,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2014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